

## 목포 이난영 공원 관리 엉망

수목 안장 6개월도 안돼 나뭇가지 등 훼손

국민 가수 고(故) 이난영의 유해가 지난 3월 목포 삼학도 시민공원에 수목장으로 안장됐으나 6개월여 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난영 유해는 그동안 경기도 파주시 공탄면에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나 '이난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지난 3월25일 목포시 삼학도 시민공원 내 20년생 백일홍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안장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백일홍나무가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나뭇가지 일부는 부러지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수목장 당시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가지가 잘라지지 못한다며 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시든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백일홍이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담양군, 위원회 절반 없앤다

운영실적 미비한 위원회 통폐합 등 31개만 유지

담양군이 유명무실하게 난립해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선다.

담양군은 이달 말까지 운영실적이 미미하거나 설립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66개 위원회 가운데 31개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정비안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이를 근거로 팀·소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주요업무 심의회의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29개는 통폐합, 2개는 인원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비계획은 '개편 휴업' 상태이거나 업무 중복으로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위원회들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군 산하 위원회 가운데 24개는 지난 2년간 단 한차례도 소집되지 않았으며 13개는 2년간 1~2차례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운영실적도 2004년에는 238회의 회의가 열렸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120회에 그쳤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 나주 축구동호인 '구장難'

32개팀 1,000명 열기 고조...운동장 없어 울상  
공공경기장 신설 등 생활체육 뒷받침 시급

나주지역 축구 동호인들이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설운동장 신설 등 체육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주지역은 조기축구회를 비롯해 동호인 축구팀 등 지역내 32개팀 1천여 명의 축구동호인들이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즐기고 있다.

이처럼 동호인 축구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 축구대회와 지역별 3개 리그전 등 수시로 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공설운동장이나 축구 전용 구장이 없어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나주지역 축구 동호인들은 공여지책으로 LG화학 나주공장측이 개방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을철이면 지역 축제나 공공기관 행사와 겹치면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회의원기행달 동호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30여개팀이 대회 참가를 신청하는 등 축구열기가 고조된 상태이나 비슷한 기간에 영산강문화 축제가 열리면

서 주 경기장과 연습 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축구협회 이보연 사무국장은 "LG화학 나주공장 운동장이 이달 말 영산강문화축제가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돼 이기간 동안에는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나주보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도 공설운동장이 들어서 있는 만큼 나주시에도 축구 전용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부지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공설운동장 건설이 지연 됐었다"며 "빠르면 이달 말경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예상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코스모스와 동심

곡성군 석곡면 둔치공원에 나들이 나온 유치원생들이 만개한 코스모스 들녘을 거닐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화순탄광 분진 농도·소음 기준치 초과

근로자 진폐증·청각장애 심각... 주민들도 분진 피해 호소

석탄광사가 운영하는 화순탄광의 석탄 분진 농도 및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 탄광 근로자들이 진폐증 및 청각장애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순탄광의 석탄 분진 농도는 1㎡당 6.18~9.23㎍으로 기준치인 5㎍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순탄광의 평균 소음 수준은 99.2~94.9dB(데시벨)로 기준치인 90dB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화순탄광의 청각장애 요관 환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와 유소견자(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 청각장애 징후가 있는 사람)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231명으로 집계됐다.

서갑원 의원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

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성능 높은 방진용 개인보호구 보급 등 시설과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화순탄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56)씨는 "수십년전부터 분진공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광업소속은 건강검진이나 피해보상도 하지않아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화순광업소는 13개 하도급업체에 총 인원 7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27만여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 "허수아비 만들어 보세요"

농업박물관 15일 체험행사

전라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오는 15일 박물관 정원에서 '2006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사진>

허수아비 만들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짚과 목재, 새끼줄 등 재료는 농업박물관에서 무료로 지급하며, 옷가지 등 기타 소품은 참가자가 준비해야 한다.

출품된 허수아비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선정, 전남도지사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출품된 모든 작품은 허수아비 이름표와 제작자, 학교명 등을 표기한 이름표를 부착, 이달 말까지 전시한다. 참가신청은 13일까지 전화·팩스 홈페이지(www.jam.go.kr)를 통해 받는다. 문의 (061)462-2796

/영암=김현남기자 hnkim@

## 한가위 주몽세트장

관광객 5만명 다녀가

지난 추석연휴기간동안 5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나주 주몽세트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추석연휴 기간인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주몽 촬영장을 찾은 관

람객이 유료입장객 4만7천명, 무료입장객 3천600명으로 모두 5만6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당일인 6일에는 1만5천851명이 입장한데 이어 7일에는 촬영장 개방 이후 최고인 1만9천840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어 4만2천여명의 촬영장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에 따라 이기간동안 입장료 수익만도 1억2천만원에 달해 주몽세트장이 나주 관광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해남 가학산

원숭이 잡았다

탈출 5년만에 등산객 공포 골



해남 가학산 원숭이가 결국 생포됐다. 11일 오전 8시경 순천야생동물구조센터 포획팀은 해남군 계곡면 가학산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제발로' 들어와 갇힌 일본산 원숭이를 마취총으로 쏘 붙잡는데 성공했다. 이 원숭이는 2001년 영암군의 한 놀이시설 우리를 탈출해 7km 가량 떨어진 이 산으로 들어와 지난 해부터 등산객들을 공격해 3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

생포작전에 나섰던 일산테마동물원 박기배씨는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면서 "일단 순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한 뒤 일산 동물원에서 3개월간 적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김범동** 10월 16,17일 **민해경** 10월 19,20일 **김수희** 10월 26,27일

**오늘출연** **부킹천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